



5면

‘소담스케어 in 전주’ 개소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음 3월 13일) 제299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노사민정 혁신 ‘전북 상생형 일자리’

신산업지도 개편 선두

군산 전기차 일자리 전환으로 경제위기 극복

전주 탄소·익산 농식품 통해 제2의 도약 준비

전북 상생형 일자리가 전기차, 탄소산업, 농생명 식품산업의 신산업지도 개편을 탄탄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상생을 전제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더불어 주민은 지역발전이 동감하고, 지자체는 정부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북은 군산, 전주, 익산 3개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현재 전국 12개의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 중에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 해 2월 정부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된 데 이어 6월 (주)명신이 전기차 1호차를 출고했으며, 8월 에디스모터스(주)가 군산공장을 준공해 중형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전주형·익산형 일자리도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상생요소를 발굴하고, 지난 1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연말까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착수한 상태다.

이제 ‘군산형 일자리’는 궤도에 올라 과거 불확실성의 대부분을 해소하고, 2024년 생산목표 달성에 안정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주)명신의 미국 패러데이퓨처사의 FF81 SUV 연 8만대 생산계획에 대응해 12인승 전기마이크로버스 연 2,000대와 E-트럭 연 10만대 위탁생산 물량까지 포함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이집트 상용차 국영기업과의 수출계획에 대응해 12인승 전기마이크로버스 연 2,000대와 E-트럭 연 10만대 위탁생산 물량까지 포함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산업부가 검토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5,412억원을 투자해 1,714명을 고용하고 전기차 32만대를 생산한다.

전주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 탄소산업 모델로 효성첨단소재(주) (주)테크카본, (주)KGF 등 3개사가 참여하고, 2024년까지 1,682억원을 투자해 2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협력기업으로 비나텍, 라지, 피치케이, 테라엔지니어링, 란스A&C, 에니에스 씨디엘 등 7개사가 탄소협동조합으로 참여해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현재 상생요소 구체화를 위한 참여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 지원사업 발굴에 상반기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완성해 하반기 지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 농업·농촌이 상생하는 모델로 하림푸드, 하림산업, HS푸드 등 하림그룹이 5년간 3,773억원을 투자해 63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익산형 일자리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19개사도 협력기업으로 참여해 사업확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워킹그룹 회의·하림과의 협의를 통해 2022년 로드맵 작성과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안정협의회·갈등조정위원회 출범 준비, 노사상생요소를 보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해 하반기 상생형 일자리 지정신청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상생형 일자리를 비롯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선제 대응 패키지, 청년 일자리 등의 정책 전개로 경제지표 개선효과가 뚜렷하다.

지난해 전북 고용률은 61.2%로 지난 1989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32년만에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 전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수 또한 97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1.8% 증가해 도 단위 1위를 기록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전북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지도 개편의 대표사업 중 하나는 상생형 일자리”라며 “경제지표 개선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새 정부에서도 군산형 일자리의 성과 확산, 전주·익산형 일자리 연내 지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선거 50일 앞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2일 전주시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18세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2023 새만금잼버리 ‘예정대로’

유은혜 교육부장관

오늘 남원 덕과초 방문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재)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정영에 여성가족부장관, 김윤덕 국회의원)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세계잼버리)를 예정대로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북도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이사회에서 세계잼버리 개최시기를 논의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회의 결정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올해 8월에는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고 아영장 환경, 시설 등을 점검해 세계잼버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개최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잼버리 기반시설과 아영장 조성 공사, 체험·모험 활동 및 전시·공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온·오프라인 매체 및 재외공관을 통한 범정부적 홍보를 실시하고, 국내 청소년 참가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는 등 국내·외 홍보와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소식지 발간, 가상공간에서 잼버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운영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공식 캐릭터인 ‘재버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기념주화 및 우표를 발행한다.

특히, 최대 규모의 지구촌 청소년 축제로서 안전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 대책, 감염병 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8개 유형의 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을 담은 행동지침(매뉴얼)도 마련했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잼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세계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3일 남원 덕과초등학교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사회 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덕과초는 학생·교직원 의견 반영한 기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간을 구현한 미래형 학습공간 구축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서 특히 ‘산 속 이야기’를 주제로 ▲자연과 어울려 생태학습이 가능한 공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 모둠 활동을 위한 특화된 공간 ▲지역민과 공유하는 공연장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먼저, 최근 새롭게 단장한 덕과초등학교 본관동에서 학교 관계자와 건축가가 직접 들려주는 학교와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 시설을 참관한다.

이어 6학년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해 미래형 학습 환경에서 이뤄지는 수업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교육청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 학·협회 마이스행사 올 상반기중 4건 유치

인센티브 개편 이후 첫 성과

전북도가 4건의 학·협회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중·소규모 마이스행사 특화 도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에 유치한 학·협회 행사는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4월, 200명), 한국응용곤충학회 춘계학술발표회(4월, 612명),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5월, 200명),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5월, 600명) 등 총 4건으로 참가인원은 1,600여명이다.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학협회 대상 학술대회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5월까지 4건을 유치했으며, 이중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술대회는 전북에서는 처음 개최되며, 나머지 학회도 10년만에 다시 전북에서 개최하게 돼 도내 마이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행사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4억4,000만원, 고용유발효과는 1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세월호 아이들은 여진히 고등학교 2학년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년 4월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운영합니다. 4월15일(금) 저녁 7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